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Does God want me well?

신앙 성장 시리즈 28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Does God want me well?

© RBC Ministries

인 쇠 : 2007년 5월 30일
발 행 : 2007년 6월 3일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편 집 :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쇠 처 : 소망사
 (02)392-4232

차례

발간사/4

서문/5

1. 고통의 문제	7
2.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	9
3. 고통 받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적 확신	14
3.1. 하나님은 당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 16	
3.2. 당신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합니다. / 21	
3.3. 하나님은 당신이 왜 고통을 겪는지 압니다. / 26	
3.4.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 32	
4. 성경에 나오는 병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	36
5. 치유에 대한 질문들.....	40
6.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56
7. 병, 치유 그리고 당신	60

발간사

하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가?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우리는 질병을 경험하고 있나?
믿음과 기도로 질병이 낫는다고 하
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
람은 낫지 않는가? 낫지 않는 사람
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인가? 하
나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질병의 원인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다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들이다. 인생에는 미스테리가 가득하다. 우리는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이 책자에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대답을 찾게 될 것이다. 꼭 읽고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

2007년 5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 상 복 목사

서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들의 삶에 질병을 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병에 걸려 아픈 것은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치유 받게 하는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할까요? 질병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런 종류의 의문과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해 RBC의 수석연구편집인 허브 밴더 러그트가 이 소책자에서 답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치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병들거나 고통을 당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긍정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틴 알 디 한 2세



1. 고통의 문제

폐암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는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도록 하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와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헌신적 그리스도인이었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간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한 달 한 달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갔지만 어떤 말로도 그

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계속 말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어머니가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깊은 슬픔을 겪으면서 혹은 극심한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고 귀하게 발견했다고 간증합니다.



2. 그리스도인이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며 지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진 당신의 피조물에게 선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고 이 피조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혜가 무한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인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1: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 질병을 이용합니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며 밴쿠버에서 감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켄 블루는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¹⁾

일반적인 사람들이 학대라고 부르는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꼬리표를 붙입니다. 프란시스 맥너트는 “세상의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딸의 자만심을 고치기 위해 암을 선택해서 딸에게 줍니까?”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치유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질병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질병은 영혼을 순수하게 하고 성품을 바로 세워준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의사이며 목회자이며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의 (라디오 성경 학교) 설립자인 (현재의 RBC Ministries) 더 한 박사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라고 그들의 의 삶 속에 질병을 주신다고 힘

1) 「치유의 권능」 *Authority to heal*, InterVasity Press, pp. 21-22.

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²⁾

내가 들었던 가장 훌륭한 설교는 강대상에서 행해진 설교가 아니라 병상에서 들은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는 고통이라는 신학대학원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적으로 배워온 겸손한 영혼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곤경에 빠져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제일 잘 알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포도가 포도주로 되기 위해서는 으깨져야 합니다. 바이올린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으면 바이올린 안에 음악은 없습니다. 빵이 되기 위해서 밀알은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포도가 포도주로 되기 위해서는 으깨져야 합니다. 바이올린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으면 바이올린 안에 음악은 없습니다. 빵이 되기 위해서 밀알은 부서져야 합니다. M.R. De Haan

2) 「깨어진 것들」 *Broken Things*, Discovery House Publishers, 1988. pp. 44, 91.



질문 2: 하나님은 지금도 명백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까?

의사인 윌리엄 놀랜드는 공들인 연구 끝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치유를 행한다는 증거나 그 누구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주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³⁾

이 년 전 나는 치유의 기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누구인가가 어디엔가에서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의사들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도 아직은 “불치병” 딱지를 붙여야 하는 환자들을 고치는 증거를 발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성경 선생인 시들로 박스터 박사는 기적적인 치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⁴⁾

3) 「치유: 기적을 찾는 의사」 *Healing: A Doctor In Search Of A Miracle*, Fawcett, 1967, p. 272.

4) 「육체의 성스러운 치유」 *Divine Healing of the Body*, Zondervan, 179, p. 270.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들이 대규모의 군중이 모인 치유집회에서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집회에 참석해 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똑똑하게 나는 병어리로 태어난 사람이 말을 하고, 귀가 절벽인 사람이 청력을 회복하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얻고, 말기 암 환자가 바로 치유가 되고 (나중에 의학적으로도 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절든 사람이 회복되어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고, 다발성경화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하던 환자가 의자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치유들은 더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유합니다. 그러나 늘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 (질문1, 질문2) 모두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유합니다. 그러나 늘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3. 고통 받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적 확신

그녀는 간호사였고 자신이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사가 병실로 와서 “수, 당신이 이미 의심하고 있는 일이 사실이라고 말해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당신은 다 발성경화증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인 마비현상, 언어장애, 시력손상, 근육반사운동경련 그리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될 때가 올 것 등 그녀는 자신이 참고 견뎌야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즐거운 예상이 아닙니다.

의사가 나간 뒤 수는 남편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며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견뎌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빠지고는 있었지만 예상보다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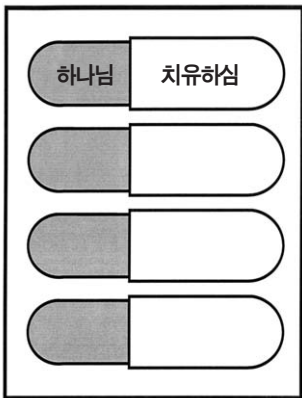
이런 각본의 기본적 요소들은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혀 상처입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가정들에서도 오래도록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살다가 조용히 저 세상으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일이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과 치유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항목을 공부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이나 고통을 겪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긍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하나님은 당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2. 당신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합니다.
3. 하나님은 당신이 왜 고통을 겪는지 압니다.
4.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3.1. 하나님은 당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병에 걸렸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아마 이 세상에서 온전함을 받겠지만, 확실히 천국에서는 온전할 것이라는—위에 서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

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새롭고 영광된 몸을 받아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결정되어 있

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기대함으로 큰 위로를 이끌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재확인한 후에 그는 계속하여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몸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20-58절). 이 진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낙천주의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후 4:16-5:1)

어쩌면 당신은 이 말씀에 그다지 크고 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치유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감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고통에서 놓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

들면 우리는 인생을 천국에 대한 진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번뿐인 삶”이니까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란 기껏해야 아주 짧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고 눈앞의 일이나 세상적인 일을 넘어 멀리 보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우리는 경이롭고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을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한 승리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체를 기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롬 5:2)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엘 프리만은 이렇게 사는 것을 배운 사람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⁵⁾

브라이언은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는 이것을 아

주 어렵게 배웠습니다. 고성능 전동휠체어를 타고 내 발가락을 넘어가려고 애쓰는 열여덟 살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에 그를 방문할 땐 안전화를 신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 전 브라이언이 10단 기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그의 옆구리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은 거의 30미터를 날아가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그 뒤 그가 기억한 것은 그의 이마를 짚어보는 간호사의 부드러운 손길이었고 그것은 닥새 후였습니다. 마비환자가 된 브라이언은 자기 연민이라는 갑작스럽게 닥친 고통과 싸워야 했고 자살의 유혹적인 속삭임에 꼭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브라이언의 신체적인 상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분노와 절망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반짝이는 눈에는 영원한 삶의 목적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치료자’가 되어 그가 위로를 받았던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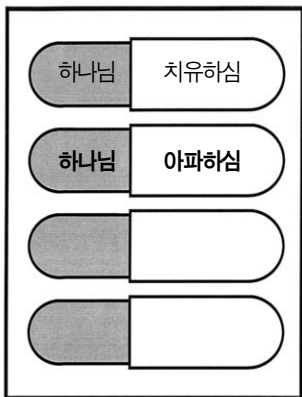
브라이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5)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God is not fair*, Here's Life Publisher, p. 110.

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보다 앞서 간 고통 받은 성도들의 위대한 모임에 속해있음을 압니다 (히 11:30-12:4). 이 사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완전히 회복되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할 그 날을 열심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3.2. 당신이 아프면 하나님도 아파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라면 당신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성경적 확신은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부동의 동자”⁶⁾가 아닙니다. 그

는 자신의 피조물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무감각한 존

6) 不動의 動者, Unmoved Mover.

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는 변덕스러운 알라신도 아닙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픕니다. 시편 기자는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 103:13-14)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섭하신 일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 63:9).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며 자녀가 고통을 당해야만 할 때 슬퍼하신다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진리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 7:14). 영원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인 예수님은 우리들 인류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외양간에서 태

어났습니다. 작은 마을 초라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집도 없었습니다. 젖형제들에게 적대적인 대접도 받았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왔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제대로 이해 받지 못했고 잘못 전해졌습니다. 조롱도 받았고 잘못된 죄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측근에게 배반당했고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채찍도 맞았습니다. 찢긴 등에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왜 그분은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이 모든 학대와 굴욕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를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입니다. 갈보리에 가기 전에 당한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로 모든 굴욕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고후 4:6) 긍휼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히 4:15-16)였습니다. 그의 백성이 아파하면 하나님은 항상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사건들을 통한 성육신 과정에서 정말로 눈에 보이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는 진리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계획이나 희망을 실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줄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곧 바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한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이루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통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모든 고통이 끝날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 아이 팩커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 웅변처럼 선포했습니다.⁷⁾

하나님이 죄인 사랑에는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랑에는 이러한 드러냄이 포

7) 「하나님을 안다는 것」, *Knowing God*, InterVarsity Press, 1973. p. 113.

함됩니다. 그것으로 사랑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자 남편인 하나님에 대해 그저 그냥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니는 특성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를 구원합니다.

좋은 남편이 아내가 고통에 시달리면 자신도 고통에 빠지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 고민하는 것처럼, 당신이 아프면 주님도 아픕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3.3. 하나님은 당신이 왜 고통을 겪는지 압니다.

하나님	치유하심
하나님	아파하심
하나님	아심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세 번째의 확신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왜?” 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도 슬픔이나 고통이 그들 앞에 찾아올 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최근에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어느 목회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에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남모르게 비밀스런 죄도 짓지 않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고, 단 음식, 커피, 탄산음료는 피하면서 내 몸을 잘 돌봤거든. 체중도 늘 유지했어. 내가 이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항의는 거의 사천 년 전에 욥이 했던 질문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욥은 “왜”라는 말을 열여섯 번이나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도덕적이며, 정직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임을 열두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욥 31:1-14).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물어보는 “왜”라는 질문들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입술에서 쏟아낸 내 친구 목회자에게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과 내 친구를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하게 지혜롭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지로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의 이유가 되는 어떤 것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을 살살이 훑어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다쳤다면 부주의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병은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를 바로잡기 위한 응징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고전 11:29-30; 히 12:6). 어떤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행 5:1-11; 고전 11:30).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의 길에 빠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자녀가 계속해서 파괴적인 길을 걷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일찍 본향으로 데려가신다는 확신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발견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언제나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덧 붙여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받는 고난도 가치 있는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2절). 제자들은 이 고난을 분명히 누군가의 죄-소경이 아직 태아였을 때에 있었던 부모의 죄 혹은 본인의 죄-에 대한 벌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일 전달 수단으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지적한 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 할 수 없느니라”하고 말씀했습니다 (4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시력을 찾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훈을 적용할지는 분명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대해 쓸데없는 억측에 빠져 우리의 힘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 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며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겪게 하지만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합당한 이유는 많습니다.

- 사탄을 침묵하게 한 고난 (욥 1-2장)
-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한 고난 (요 11:4)
-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고난 (히 2:10; 빌 3:10)
-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고난 (롬 8:28)
-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가르치는 고난 (출 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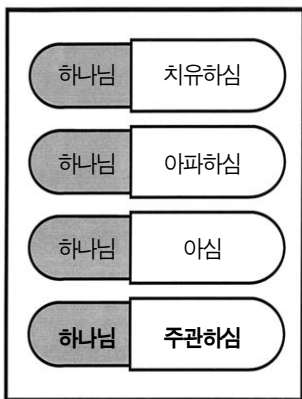
14; 사 40:28-31)

-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고난 (욥 23:10; 롬 8:24-25)
- 인내를 가르치는 고난 (롬 5:3; 약 1:2-4)
-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고난 (고후 1:3-6)
-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는 고난 (고후 12:7-10)
- 상을 받게 하는 고난 (딤후 2:12; 벧전 4:12-13)

이외에도 고난을 허락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3.4.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는 네 번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나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사탄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이 우주 속에 짜 넣은 자연 법칙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욕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주신 앓은뱅이 여인은 “십팔 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눅 13:16). 사탄은 역시 잘 훈련받은 교인의 “육신을 멸”하는 일에 개입하였습니다 (고전 5:5). 그리고 바울이 지니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그를 “치려고” 주신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고후 12:7).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습관적으로 과음하는 사람은 환각상태에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잠 23:29-35). 젊은이가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소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의 위장병은 그가 마셨던 물과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딤후 5:23). 예방 접종, 식이요법, 건전한 건강습관으로 많은 질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괴롭히는 고통의 상당 부분의 일차적 원인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지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사탄과 자연적인 요인이 인간의 많은 고난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고난에 하나님이 개입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사악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괴롭혀도 좋다고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정해주었습니다. 사고나 병을 추적한 결과 인간의 부주의함이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지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의 죽음 같은 사소해 보이는 사건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 10:29). 우리 믿는 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선포함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표현했습니다 (엡 1:11).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주관 아래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병들게 하여 사탄이 당신을 시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 또는 악인의 잔인한 공격으로 일어난 사고를 통해 당신이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하거나 심지어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의

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
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당신이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고통이나 슬픔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오기 전에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서 의지로 허락하였음을 기억해
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기
적적으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하지 않더라도
고통을 겪는 동안 늘 당신과 함께 하며 언젠가는 당
신을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의 궁극적인 행복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
다. 지혜와 선함이 완전하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4. 성경에 나오는 병들과 고통 받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심각한 병, 극심한 고통, 깊은 슬픔,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또는 사탄이 행한 일로 돌려집니다. 또 가끔은 원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통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더러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인 치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죽음을 맞는 수도 있습니다. 이 유가 설명되기도 하고 다만 함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혀 암시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욥(욥 1-42장)

- 신분: 약 사천년 전에 살았던 신앙심 깊고 부유한 사람 (1:1-5).
- 고통: 재산 상실, 자녀 죽음, 고통스런 피부병

(1:13-19; 2:1-10)

- 원인: 하나님의 허락을 얻은 사탄 (1:12; 2:6)
- 이유: 시련 당한 뒤의 정제된 깨끗함 (1:6-12; 2:1-10; 23:10)
- 결과: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과 자신에 대한 이해 (42:1-6)
- 교훈: 하나님과 사탄 모두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는 일에 개입함 (1:12; 2:6)

미리암 (출 15:20-21; 민 12장; 26-59)

- 신분: 모세와 아론의 누나
- 고통: 문둥병
- 원인: 하나님
- 이유: 반역에 대한 징벌
- 결과: 회개, 치유, 회복
- 교훈: 하나님은 때로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해 별로 고통을 줌

에스겔의 아내 (겔 24:15-27)

- 신분: 대 예언자의 아내
- 고통: 그녀의 병과 죽음
- 원인: 하나님
- 이유: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

-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
- 교훈: 하나님은 때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고통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동원함

므비보셋(삼하 4:4; 9장)

- 신분: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 고통: 유모가 떨어뜨려 다리를 못 씹
- 원인: 밝혀지지 않음
- 이유: 밝혀지지 않음
- 결과: 전혀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일생을 불구로 지냄
- 교훈: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항상 설명하는 것은 아님

바울(고후 12:1-10)

- 신분: 이방인에게 전도한 위대한 사도
- 고통: 육체의 가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육체적인 만성질병)
- 원인: 하나님의 선물 (함축된 의미로) 그리고 “사탄의 사자”
- 이유: 특이한 영적 경험 때문에 바울이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함
- 결과: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고 가시는 그대로 남음. 가시를 지님으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축복이 됨

- 교훈: 하나님은 가장 헌신적인 자녀에게까지도 더러는 일시적인 치유도 베풀지 않음



5. 치유에 대한 질문들

이제부터는 특정한 성경 구절에서 일어나는 치유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닌 치유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양식에 쓴 글에서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라고 명령할 권세는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실질적인 일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몇몇 사람이 내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마태복음 10장 7-8절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책망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치유할 권세를 주셨던 것은 맞습니다. 아마 죽은 자를 살리는(이런 단어는 몇몇 초기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권세까지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을 행군 명령으로 삼거나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갈보리 건너편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들은 “천국복음”에 대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참조한 다음 디 한 박사는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봉사에 대해 돈도 받지 말아야 했고, 어떤 양식도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목회하던 사람들이 베푼 친절과 자선과 관용으로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사치하며 빈둥거리는 일도 없었고, 호화로운 객실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엄격하고 자기부정적이었습니다. 외양간에서 태어나 친구들이 베푸는 자선에 의지했고, 빌린 새끼 노새를 땀고, 범죄자들과나 달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머리를 돌 곳이 없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절에 나오는 “병든 자를 고치며”라는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받으려면 이와 관련하여 주님이 주신 모든 지시사항도 더불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에도 같은 기적을 추구하는 근거로 끊임없이 인용되지

만 확실히 나머지 구절들도 함께 적용하는 일관성이 꼭 요구됩니다.



속죄함으로 받는 치유는 무엇입니까?

암으로 죽어가던 신앙심이 깊은 환자가 라디오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죄의 삯에서 자유로움을 선포하듯이 우리는 병에서 자유로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6-17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환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의 고통만큼이나 믿음이 부족함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다고 확신시켜주었습니다. 그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환자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죽음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와 치유에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8장 16-17절을 들여다봅시다.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
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
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
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
이더라

마지막 절은 히브리 성경의 이사야 53장 4절을 정
확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병을 “지고” 자비롭게 인류의 고통과 슬픔 속
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표적이었
습니다. 그 표적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는 마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그래서 궁
극적으로 모든 고통을 끝내주신 그분의 죽음을 가리킵
니다. 그분이 베푸는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완전한 치유의 표적입니다.

이 구절에는 속죄를 통한 육체적인 치유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시사하지 않고 있습니
다. 카슨은 말했습니다.⁸⁾

십자가는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됨

8)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Zondervan,
p.267.

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들 육체의 부활을 요구할 권리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이상으로 위에서 말한 모든 은혜가 요구만 하면 보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완전한 치유의 표적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병들거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예배에 초대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줍니다. 이 의식은 야고보서 5장 13-16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병자가 장로더러 그에게 와달라고 청합니다. 아마도 그의 병이 너무 심하여 장로들에게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프다는 말을 그리스어로 14절에는 *asthenia*라고 15절에서는 *kamno*라고 한 것이 보이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 단어가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모양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치료의 희망이 없는 환자일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공예배 석상에서 또는 강대상으

로 초대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일은 의식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기름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치료의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기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병자를 육체의 죽음에서 구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고통스런 통곡이나 절규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한 것과 상반됩니다 (마 6:7-15). “믿음의 기도”는 영혼이 이끄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16절은 교회시대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학생들은 이 말씀이 사도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을 위해 의도되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서의 저작 년대가 신유의 은사와 분별의 은사를 지닌 사도들이 살아있던 아주 이른 때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전 12:1-11). 그들은 또한 이 말씀이 치유가 항상 기대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

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다른 많은 학생들은 이 해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사도시대로 국한시키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예배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도 지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이 일의 유용성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어쨌든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공예배에서 기름을 바르는 일의 성경적 근거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 14:12)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해야 할 처음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에

게 말씀하셨을까?”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들이 베푼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것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오천 명을 먹이고, 명령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큰 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복음의 영적인 승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 시대의 세계를 뒤엎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행 17:6). 대부분 이방인이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고 변화되었습니다. 단지 삼십 년의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까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을 기적을 행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권리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의해서 주권적으로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

왔습니다 (고전 12:1-11). 은사들을 열거한 뒤에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11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것 같은 기적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경구절에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분별력 있고,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유집회에서 안수를 통해 치유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중단되었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신약성경의 구절을 제시하라며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저자들이 치유의 은사가 끝났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은 기원후 68 년경에는 사도시대의 초창기처럼 기적적인 은사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것 같은 기적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뉘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선언했습니다 (히 2:3-4). 그는 이 말씀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게다가 “표적들과 기사들” 그리고 “성령의 나뉘주신 것”을 합쳤습니다. 아마도 초자연적 표적의 은사는 더 이상 사도시대의 초창기처럼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어에서는 초자연적인 표적의 은사를 (치유들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들, 기적들의 사역들) 두개의 복수 명사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자연적 은사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직책의 은사처럼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엡 4:11). 초자연적인 표적의 은사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만 다시 주어지거나 새롭게 주어진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지만 (행 19:11-12) 에바브로디도 (빌 2:25-30), 드로비모 (딤후 4:20), 디모데는 (딤후 5:23) 치유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사도들조차도 치유의 은사를 자기 안에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가 오늘날에 그런 은사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할 합당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후세의 교회사에 기록된 기적적인 치유의 사례들은 이적과 표적과 치유의 은사가 계속된 증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분명하게 초자연적이라 할지라도 표적이나 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서 기도를 통하여 치유를 받는 것은 누군가가 “신유의 은사”를 발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할 때는 언제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고 된 놀랄만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성지나 치유자의 집회에 가서 기도를 통하여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비기독교인들의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까지도) 성향은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비 종교인들이 이 문제들을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좀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건 비 그리스도인들이건 자연적인 증세 완화나 치유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재빨리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정신과 물질간의 관계에 대한 미스테리와 설명할 수 없는 암시의 능력에서 임시방편적 해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치료법을 쓰는 돌팔이의 처치를 받은 사람들의 놀랍다는 치유에 대한 증언에 대해 반박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

으로 놀라운 치유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기적들은 사탄 숭배자들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빙성을 그들이 일으킨 기적들을 분석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10절에서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놀라운 계시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에게 그것이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것을 “나를 치시려는 사탄의 사자”라고도 했습니다. 가시를 주신 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라서 바울이 계속 겸손하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시를 이용하여 그를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더러는 간질 또는 말라리아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내재하는 마귀 또는 고통스러운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9절) 라는 바울의 말과 맞지 않습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마귀 또는 끈질긴 적들은 “약한 것들”이 아닙니다. “가시”는 물어볼 것도 없이 어떤 종류의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도록 놀라운 은혜와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건 조건을 다 이행하면 우리는 항상 치유를 받으리라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완전한 치유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병의 증세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1983년 11월 25일자 「오늘의 기독교」⁹⁾에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접근을 시도한 한 가족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15개월 된 그들의 아들이 유행성 감기 같은 증상을 보였을 때 그들은 교회지도자의 충고에 따라 아들의 회복을 전적으로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몇 주 계속하여 아들은 점점 더 심하게 아팠고 청각과 시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리라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대로 죽은 채로 있었습니다. 검시 결과 사인은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뇌막염으로 밝혀졌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의해 치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크나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크기에 의해 치유 여부가 결정이

9) Christianity Today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들 중 어떤 것들은 그 기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 12:9-13; 막 1:23-28; 눅 7:11-15; 13:10-13; 14:1-6; 22:50-51; 요 9:1-38).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고침 받지 못한 것이 그의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디모테가 위장병을 갖고 있었던 것이 믿음이 부족한 탓이었습니까? (딤후 5:23)



6.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 소책자의 표지에 제목으로 나타난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후 2:4) 라고 말씀하신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건강한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길로 떨어졌기에 징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 12:6).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고난으로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롬 5:3-5; 약 1:2-4). 그들의 가르침은 우

리에게 고난은 영적 성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만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 건강이나 혹은 즐거움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지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당할 많은 고난을 감수하고자 우리 자신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을 낙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주며 육체적,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삶의 방식을 갖도록 해줍니다. 적어도 아홉 가지의 방식으로입니다.

1. 죄가 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위안을 얻게 합니다 (시 32:1-3; 롬 5:1).

2. 용서할 수 없는 영혼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비통함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마 6:12, 14-15; 엡 4:32).

3.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고전 6:19)과 부활이 예정되어 있음 (고전 15장)을 확신하게 하여 우리의 육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키워줍니다.

4. 성적인 표현은 결혼으로 이루어진 결속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만족을 주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고전 7:1-5; 히 13:4).

5. 믿는 독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고전 7:7-8, 32, 39-40).

6. 미래에 대한 낙천적인 확신이라는 희망이 특징입니다 (롬 8:31-39).

7. 각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서로 유익이 되는 특별한 역할로 채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선택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롬 12:3-8; 고전 12:1-31).

8.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촉진하여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며 아플 때 치유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 7:7-11; 롬 8:15; 약 5:14-15).

9. 고통을 당할 때조차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행 5:41; 고후 4:16-18).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당신에게
병이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이 영원토록 건강하도록 지켜보실 것입니다. 이 사실
을 믿으면 당신의 건강이 증진될 것입니다.



7. 병, 치유 그리고 당신

젊은이들은 병이나 슬픔과 접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조부모님이 여전히 생존해 계신 이들도 있습니다. 설령 조부모님이 병들거나 돌아가시는 것을 보아도 그들의 가까운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누구든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가까이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미안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또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런 소식을 차

분하게 희망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순종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치유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아가서 당신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서 고통을 사용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본 적이 전혀 없다면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런 다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위해 그랬음을 믿으십시오. 그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그의 가족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돌보아줄 것입니다.

- ❶ **절망에서 희망으로(How To Get Up When You're Down)**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 ❷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Who Needs Church?)**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 ❸ **오 신실하신 하나님(Believe :God Is Faithful)**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 ❹ **복 있는 사람(What Does It Take To Be Happy?)**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 ❺ **균형 있는 가정생활(Does The Bible Contradict Itself About The Family?)**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 ❻ **왜 살아야 하나?(Why In The World Am I Here?)**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 ❼ **행복한 결혼생활(What Will Make My Marriage Work?)**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 ❽ **남자다운 남자(What Does God Expect Of A Man)**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 ❾ **여자다운 여자(What Does God Expect Of A Woman)**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 ❿ **걱정 없이 살고 싶다(What Can I Do With My Worry?)**
왜 걱정합니까? 걱정 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 ㉑ **다시 찾은 사랑(The Way Back)**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 ㉒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How Can I Know What God Wants Me To Do?)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 ㉓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Time With God)**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 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What Kind Of Worship Is God Looking For?)**
평생 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A Parent Find Peace Of Mind?)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얻는 부모의 영적 평안함

16 결혼의 약속(What Is The Promise Of Marriage?)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한 결혼의 4가지 단계

17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How Can I Feel Good About Myself?)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길

18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Studies In Contrast:The Doctrine Of Salvation)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구원의 신앙

19 균형있는 기독교론(Studies In Contrast:The Doctrine Of Christ)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

20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What I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 나가는 길

21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How Can I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22 교회 지도자의 자격(Who Qualifies To Be A Church Leader?)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지도자의 대한 성경적 기준

23 갈등 해결의 방법

(Developing The Art Of Gracious Disagreement:Surviving Church Conflict)

갈등해결을 위한 성경적 방법

24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What Do You Do With A Broken Relationship?)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해답

25 종교나 그리스도나 무엇이 다른가?

(Religion Or Christ :What's The Difference?)

그리스도와 종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바로 아는 길

26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Jesus' Parables About Money)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에 대한 참된 지혜

27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How Can I Find Satisfaction In My Work)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해결책

「오늘의 양식」 「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 및 헌금자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H · P																										
우 편 번호		부 수	월	구독기간: 년 월~ 년 월																									
구 분		① 신규 ② 주소변경 ③ 부수변경 ④ 재신청 ⑤ 취소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신 청 부 수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